

한국과 일본의 웰니스관광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김상윤

경동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Trend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Wellness Tourism Policy in Korea and Japan

Sang-Yoo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Kyu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헌연구와 온라인 면접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정책적 유사성을 가진 일본과의 웰니스 관련 관광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조사 결과, 웰니스관광 관련 개념은 한일 양국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 치유(힐링)관광보다 헬스투어리즘이나 웰니스관광 개념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관광정책은 정책주체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율성, 관련 인증 및 인력양성 분야는 일본이, 정책의 추진력과 제도적 정비는 우리나라가 보다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NPO법인 헬스투어리즘진흥기구나 산림테라피소사이어티 사례와 같이 웰니스관광협의체를 구축하고, 웰니스관광의 체계적 인증 및 관련 인력양성의 질적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웰니스관광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된 웰니스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웰니스관광의 치유적 효능과 상품적 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웰니스관광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웰니스관광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웰니스관광정책, 건강관광, 치유관광, 인증, 웰니스관광협의체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trends of wellness-related tourism policies in Japan, which have policy similarities with Korea, through related literature research and online interview surveys amid growing demand for wellness tourism in Korea's wellness tourism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wellness tourism-related concepts do not differ particularl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use of health tourism or wellness tourism concepts is more common in Japan than healing tourism. Wellness tourism policy is analyzed to be more systematic in Japan in the areas of policy principal agent's flexibility, policy efficiency, related certifi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Korea in the driving force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of policy. It was judged that Korea needs to establish a wellness tourism consultative body, such as the case of Japan, and improve efficiency through systematic certification of wellness tourism and qualitative management of related manpower. In order to industrialize wellness tourism,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healing effectiveness and product value of wellness tourism by organically linking wellness resources specialized by region, and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f the direction and strategies of wellness tourism polici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COVID-19) Era and an empirical study of tourism sites.

Key Words : wellness tourism policy, health tourism, healing tourism, certification, a wellness tourism council

*Corresponding Author : Sang-Yoon Kim(treekim@kduniv.ac.kr)

Received April 8,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12,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웰니스(Wellness)’란 개념은 1961년 미국의 의학자인 국립통계청 H. L. Dunn 박사의 저서 ‘High-level Wellness’에서 처음 제창되었다. 이후 1976년 미국에서 웰니스협회를 창립하여 웰니스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면서 웰니스산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1].

특히 2000년대 말 이후 ‘소확행’, ‘워라벨’, ‘올로’ 등 웰니스 관련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에 대한 사회적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2,3].

Global Wellness Institute[4]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6,394억 달러로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9,19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세계 16위 수준이며, 2017년 기준 연간 72억 달러, 1,960만 건의 웰니스관광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5].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웰니스관광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형성된 웰빙 열풍이 2000년대 말부터 힐링(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로 전환되었다. 최근에는 이를 건강 및 관광과 융합시킨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과 시책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는 지역 관광지와 ‘치유의 숲’, 음식점, 커피숍 등을 연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7], 충청북도와 충주시, 제천시 ‘웰니스 몸심 맘심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 바 있다[8].

이와 같이 산림이나 해양, 온천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Bae 등[9]이 한일 양국의 산림치유사업과 육성정책을 비교·연구하기는 하였으나 산림치유적 관점이 아닌 웰니스관광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책동향을 분석, 고찰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연휴양림제도 및 산림치유¹⁾정책, 온천법과 보양온천제도 등 우리나라와 정책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웰니스관광정책을 비교, 고찰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웰니스관광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의 정책사례 중 국내 웰니스관광의 효율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자료를 포함한 관련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의 웰니스 관련 관광정책 동향을 정성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 2차에 걸쳐 KISS, ScienceON 등 국내 전자DB 플랫폼을 통해 관련 키워드 분석을 한 결과, ‘웰니스관광’(논문 35편, 학위논문 32편, 보고서 8편), ‘건강관광’(논문 128편, 학위논문 490편, 보고서 220편), ‘치유관광’(논문 61편, 학위논문 90편, 보고서 29편), ‘힐링관광’(논문 24편, 학위논문 57편, 보고서 19편), ‘산림치유’(논문 162편, 학위논문 150편, 보고서 44편), ‘해양치유’(논문 38편, 학위논문 14편, 보고서 18편), ‘온천치유(요법)’(논문 20편, 학위논문 23편, 보고서 6편)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된 문헌자료와 G포털 등 양국의 검색엔진을 통해 ‘웰니스관광’, ‘건강관광’, ‘치유(힐링)관광’, ‘산림치유’, ‘해양치유’, ‘온천치유’ 등의 키워드로 조사한 논문 및 정책보고서, 인터넷자료 중 최근의 웰니스관광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2010년 이후의 관련 문헌자료 80여 건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일본의 관광청, 임야청²⁾,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산림테라피소사이어티(이하 ‘소사이어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헬스투어리즘진흥기구(이하 ‘진흥기구’), 헬스투어리즘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 일본온천기후물리의학회(이하 ‘온천의학회’), 일본온천협회, 일본온천보양사협회(이하 ‘보양사협회’) 등 양국의 웰니스관광 관련 기관 및 협회 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수집 후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정책동향 분석은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영역별, 추진시기별로 주요 정책을 도출하고, 관련 특성 및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문헌연구의 보완을 위해 2021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흥기구’와 ‘온천의학회’, ‘보양

1) 일본의 경우 산림테라피(森林セラビ)라고 지칭함

2) 우리나라의 산림청에 해당하는 일본의 정부조직임

사협회'의 관계자(이사 및 사무국장)에 대해 일본의 웰니스관광 관련 개념, 헬스투어리즘 및 온천치유 정책동향과 발전과제 등에 관해 비표준화면접방식에 의해 e-mail을 통한 온라인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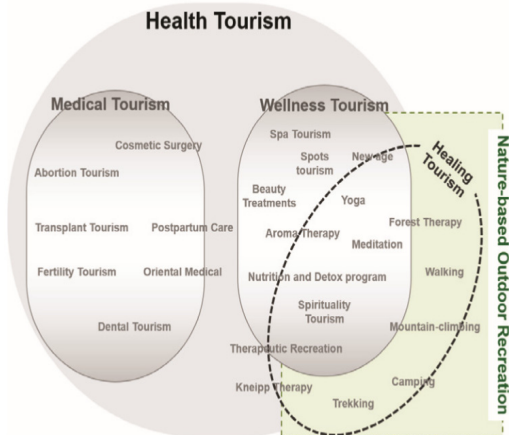
2. 이론적 고찰

2.1 웰니스관광 개념 검토

웰니스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에 대한 가치관 및 정의를 보다 심화시켜 제시한 개념으로, 웰니스적 요소를 기반으로 최적의 건강상태와 행복한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웰니스의 개념을 관광분야와 연계·융합한 웰니스관광은 주로 1990년대 이후 건강관광(health tourism)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의료관광이나 보건관광, 요양관광, 치유관광 등 다양한 유사개념과 함께 사용되어 오고 있다[11,12].

Kim[13]은 건강관광과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치유관광의 관계를 Fig. 1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관계로 볼 때 웰니스관광의 개념은 큰 틀에서는 건강관광의 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때 활용되는 연계자원에 따라 산림치유, 해양치유, 온천치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Source: Kim[13]

Fig. 1. Health Tourism and Wellness Tourism Area in Korea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웰니스관광 관련 개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웰니스관광에 있어 한일 양국 간에 특별한 개념적

차이는 없지만, 일본의 경우 치유(힐링)관광의 개념보다는 헬스투어리즘이나 웰니스관광이라는 용어 사용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진흥기구'와의 온라인 면접조사에 의하면 일본 관광청에서 "관광입국기본추진법"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뉴 투어리즘(헬스투어리즘 및 웰니스투어리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유관광이나 힐링관광의 개념과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유사개념보다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웰니스관광은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개선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의 일반적 건강관광과는 구분되고 볼 수 있으며, 치료와 휴양을 다중목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의료관광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웰니스는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지적·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위한 욕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객의 욕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웰니스관광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34].

웰니스관광의 한 유형인 산림치유는 '휴식기능'보다는 '치유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림휴양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26], 산림욕보다 한 단계 발전되고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치유의 경우 프랑스의 탈라소테라피 개념이 일본에서는 해양요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치유의 개념으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선행연구 검토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개념을 검토한 연구로는 웰니스 관련 개념의 변천과 동향을 분석한 연구[10]를 비롯하여 웰니스관광, 치유관광, 힐링관광 등 관련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24,35]. 이 가운데 Choe와 Rhie[10]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KCI 등재논문에서 웰니스에 관한 논문이 573편, 힐링에 관한 논문은 229편이 진행되었다고 규명하였으며, 특히 2013년 이후부터 웰니스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웰니스 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한 선호도[36], 웰니스관광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37], 웰니스 및 치유관광의 활성화 방안[38,39], 웰니스 관광지 구축 현황 및 개선 방안[40], 웰니스관광의 평가지표 개발[41], 치유관광 정책사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42], 강원도형 치유관광의 과제 및 웰니스 상품화 방안[43] 등 최근 웰니스

관광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웰니스관광의 연구대상도 산림치유, 해양치유(탈라소테라피), 온천, 메디컬 스파, 자연치유시설, 치유농업, 명상 등으로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4,45].

최근에는 웰니스관광 및 치유관광의 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46]. 일본의 경우 Takeda[47]가 일본의 헬스투어리즘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관광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바 있으며, Nishimura[48]는 일본 고베시의 웰니스 워킹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헬스투어리즘의 현황과 과제

를 진단하였다. Arakawa 등[49]은 일본의 헬스투어리즘 현황에 대해, Arakawa[50-52]는 일본형 헬스투어리즘의 방향성, 해양요법과 관광의 융합 방안, 헬스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한 온천요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Hosono[53]는 일본의 지역별 산림치유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치유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산림치유, 해양치유 관련 정책 또는 산업 동향을 비교한 연구로는 Bae 등[9]이 양국의 산림치유사업과 육성정책을, Lee와 Sim[54]이 양국의 해양치유산업 현황에 대해 비교 검토한 바 있다.

Table 1. A Comparison of Wellness Tourism Concepts in Korea and Japan

Type	Definition of Concept	
	Korea	Japan
Health Tourism	Visiting and traveling to other places for a wide range of health treatments ranging from disease treatment to health and recreational programs[14]	Health-enhancing travel based on validation of the effects of medicine, physiology, brain science, and psychology[15]
		Travel that contributes to health promotion, maintenance, recovery and prevention of health with ideology based on EBH: Evidence Based Health[16]
Wellness Tourism	A new trend in tourism that seeks to improve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rough tourism as a combination of wellness and tourism[17]	Travel to improve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enjoy a richer life through meals and activities in travel destinations[18]
	Going sightseeing for health and healing purposes and enjoying spa, recreation, beauty, health care, etc[19]	Travel to improve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rough spa, yoga, meditation, fitness, health food, recreation, exchange, etc., travel to access to local resources, new discoveries and self-development, and travel to recharge and revitalize[21]
	Tourism activ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promoting health through all activities related to traveling and staying to improve health[20]	
Healing Tourism / Therapy Tourism	Tourism activities to visit and experience destinations equipped with healing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physical and mental healing[22]	This refers to forest bathing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activities to maintain, promote, and prevent mental and physical health while enjoying the forest[28]
	Any series of activities conducted at relevant tourist programs or tourist attractions for the purpose of mental and physical recovery[23]	
	Tourism activities related to the pursuit of health for the purpose of healing in nature-based tourist destinations[24]	
Forest Therapy	the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Activities to enhance the immunity and health of the human body by utilizing various elements of nature, such as scent and landscape"[25]	This refers to forest bathing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activities to maintain, promote, and prevent mental and physical health while enjoying the forest[28]
	Activities to improve the body's immunity and restore physical and mental health by utilizing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forest[26]	
	Forest activities in which it communicates physically, sensually, and mentally with human mind and physical health, that the various natural environmental elements of the forest: landscape, sound, fragrance, phytoncide, anion, rays, climate, and terrain[27]	
Marine Therapy	Activities to impro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by using marine life resources such as seawater, sea mud, sea sand, sea salt and marine algae, marine climate, marine environment, etc.[29,30]	Thalassotherapy is a combination of the Greek word thalasso(sea) and French therapie(medical treatment) and defined in the French Academy as the treatment of sea water, marine algae, and sea mud along with the oceanic climate[31]
	Activities aimed at promoting physical, mental, spiritual, and social health by utilizing marine resources such as seawater and marine climate[30]	Health method to improve health and prevent a disease by utilizing marine climate and marine-related health materials[32]
Balneo Therapy	Healthy Hot Spring Complex: Hot Spring Complex with excellent temperature and ingredients of hot spring water, hot spring facilities, surrounding environment, etc. and connected to and operated medical facilities[33]	Balneotherapy: A medical method for enhancing immunity and treating diseases by bathing in hot springs, or by drinking, inhalation, etc.[31]

3. 한국의 웰니스관광정책 동향 분석

3.1 웰니스관광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주요 웰니스관광정책 동향을 정책영역 및 추진시기별로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국내 웰니스관광정책은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한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문체부’와 ‘공사’에서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웰니스관광지를 선정하여 왔다.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

숲 치유 등 4개 테마군으로 구분하여 2020년 신규 선정 한 9곳을 포함해 총 4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웰니스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하였다[55,56,64].

또한,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경남, 충북, 강원권에 웰니스관광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충주를 명상치유거점, 제천을 한방웰니스관광거점 등으로 육성하고 있다[19].

Table 2. Korea's Major Wellness Tourism Policy Trends

Type	Related policies	Time to ahead	Policy contents
Wellness Tourism	Selection of Wellness Tourism Resourc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7.5	-Selection of 25 best Wellness Tourism Resources: Selected from four candidates: oriental medicine, healing(cure), meditation, beauty(beauty care), spa, nature-forest healing[55]
		2017.7	-The establishment of the Wellness Tourism Council for the Top 25[56]
		2018.4	-Expand to 33 Wellness Tourist Attractions[6]
		2019.9	-10 more Wellness Tour Attractions selected
		2020.6	-9 new Wellness Tour Attractions selected
	Designating a Wellness Tourism Clust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5	-Wellness Tourism Cluster selected to foster distinctive Wellness Tourism Base(7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nam-do)[57]
		2019.4	-Specify additional Wellness Tourism Cooperation Zones (Cluster): Chungju (meditation healing), Jecheon (oriental medicine wellness)[19]
		2020.5	-Additional Wellness Tourism Cooperation (cluster) Zone specified (Jeongseon-gun, Pyeongchang-gun, Donghae-si Gangwon-do, Korea)
Forest Therapy	Operation of 'Healing Forest' System and Training Related Personnel (Korea Forest Service)	2005.8	-Enactment of the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2006.6	-(Inc. Association) Establishment of the Korea Forest Healing Forum and search for ways to utilize forest healing[26]
		2009.1	-Saneum Healing Forest (Yangpyeong, Gyeonggi Province), the first national healing forest in Korea, has been opened[25]
		2011.7	-Revised the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and introduced the Forest Therapy Instructor System[26]
		2012.5	-Development of a plan to promote forest therapy (2012-2017)[26]
		2014.12	-Enactment of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Healing Forest Facilities" under the order No. 1228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therapy forests
		2015.3	-Enactment of the 'Forest Welfare Promotion Act'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roviding forest welfare services (maintenance of organizations and systems related to forest welfare, space creation, training of professionals, development of healing programs and contents, etc.)[58]
		2016.4	-Establishment of Korea Forest Welfare Promotion Agency
Marine Therapy	Selec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oad Map Establishment for Cooperation in Fostering the Marine Therapy Industr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Establishment of a marine health care demonstration complex through the '2nd Marine Tourism Promotion Master Plan'[59]
		2017.10	-Four cooperative local governments (Goseong-gun, Gyeongsangnam-do, Uljin-gun, Gyeongsangbuk-do, Wando-gun, Jeonnam, and Taean-gun, Chungcheongnam-do) were selected to discover marine healing resources and foster industries
		2018	-Establishment of a road map for fostering the marine healing industry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and establishment of a ground law through verification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marine resources[60]
Balneo Therapy	Operation of the Healthy Hot Spring System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995.12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urturing Hot Spring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ot Spring Act
		2007.11	-A Study on the Designated Standards of National Hot Springs carried out[61]
		2008.10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Healthy Hot Springs'[62,63]

3.2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 동향

3.2.1 산림치유정책

우리나라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주도로 산림치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5].

산림청에서는 산림휴양과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의 다양한 산림치유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복지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왔으며, 2015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산림복지 관련 공간조성, 전문인력 양성, 치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66].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진흥원’과 함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을 통해 2020년까지 1,418건(1급 244건, 2급 1,174건)의 자격증이 발급되었다[67].

3.2.2 해양치유정책

국내에서 해양복지 및 해양치유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수부’에서 해양복지 및 해양치유 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2개 과(소득복지과, 어촌어항과)에 불과해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66].

반면에 ‘해수부’가 2017년 10월 해양치유자원의 발굴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4개 협력 지자체(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를 선정하고, 해양자원을 통한 치유와 휴양·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66]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에는 해양치유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사업 모델 개발과 근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60], 향후 해양치유산업 분야에서의 수요 및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3.2.3 온천치유정책

국내 온천치유정책은 2008년 보양온천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속초 설악워터피아 등 10여 곳이 보양온천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보양온천은 일반온천보다 온천수(용출온도 35℃ 이상 또는 인체에 유익한 총고용물 함량 1000mg/l 이상 함유 온천 등), 온천시설(음급조치실·운동욕장 등 건강시설, 기본시설, 의료시설), 주변환경(공기청정도, 소음도, 경관 등) 등에 대한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1,63], 건강 및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양온천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및 관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온천의학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천 프로그램 개발과 온천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68], 관련 정책화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일본의 웰니스관광정책 동향 분석

4.1 웰니스관광정책 동향

일본의 주요 웰니스관광정책 동향을 정책영역 및 추진 시기별로 분류하면 Table 3과 같다.

온라인 면접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2006년 헬스투어리즘의 활성화 및 유기적·융합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진흥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본 기구에는 관련 정부조직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의료·복지, 건강·미용, 스포츠, 관광 분야의 전문가와 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관련 조직 및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헬스투어리즘과 웰니스관광의 체계적 인증을 위해 ‘진흥기구’에서 안전성(설비점검 및 유의사항 설명, 개인정보 관리), 유효성(프로그램 구성 및 참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유무), 가치창조성(지역자원의 활용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을 기준으로 2018년부터 관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72].

일본의 헬스투어리즘 인증제도는 경제산업성³⁾의 “건강수명연장산업 창출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흥기구’(주관사무국), ‘일본규격협회’, ‘일본스포츠투어리즘추진기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오모리 히비노 신목(神木)코스’ 등 40여 곳이 헬스투어리즘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다[69].

또한 헬스투어리즘 인증은 스포츠·액티비티(운동), 휴식(휴양), 건강식(영양) 분야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진흥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정부조직임

웰니스관광지와 치유관광지로서의 유인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으로 Arakawa[73]는 기후, 자연, 음식, 문화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28,000개가 넘는 온천자원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와쇼쿠'(和食)의 활용을 강조하였다[21,73].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자원과 향토음식 등을 적극 연계하여 웰니스관광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이를 질적으로 인증·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 동향

4.2.1 산림치유정책

일본은 기존 자연휴양림제도나 '레크리에이션 숲'과 같은 휴양중심의 정책에서 치유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 연계로 발족한 "산림테라피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산림치유 효과의 과학적 분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74]. 2004년 임야청을 통해 '산림테라피기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독립행정법인 산림종합연구소(이하 '연구소')⁴⁾가 주축이 된 연구팀에서

Table 3. Japan's Major Wellness Tourism Policy Trends

Type	Related policies	Time to ahead	Policy contents
Wellness Tourism	Japan Tourism Agency	2006	-Enactment of Tourism National promotion Basic Law
	(NPO) Establishment of the Japan Health Tourism Organization	2006.9	-(NPO) General Assembly of Japan Health Tourism Organization[16]
	Health Tourism Certification	2018	-It is a service certified by the 'Health Tourism Certification Committee' and introduced as part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s "Creation Project for Health Life Extension Industry" -The (NPO) Japan Health Tourism Organization, the Japanese Standards Association, and the Japan Sports Tourism Alliance, formed a certification committee for three years(early stage) -Certification screening is conducted based on the program, business operation system, and implementation results[69]
Forest Therapy	Certifi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related to forest therapy	2004	-Establishing a forest therapy base plan at the Forestry Agency(corresponding to the Korea Forest Service) in Japan
		2006	-A research team led by the Forest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has begun certification of "Forest Therapy Sites" and the Forest Therapy Society(NPO) has certified the "Forest Therapy Base"[28,65]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orest therapy base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26,28]
		2006~	-The (NPO) Forest Therapy Society is in charge of the test, and also grants Forest Therapy Guides and Forest Therapy Qualifications[26,28] -The Forest Therapy Research Society and the Forest Therapy Execution Committee registered forest therapy, forest therapy bases, and forest therapy roads as trademarks[53]
Marine Therapy	Operation of the Thalassotherapy (Ocean Therapy) facility	1990s~	-The local government used it as a means to revitalize tourism, private-led autonomous promotion[58] -Since the late 1990s, Thalassotherapy using deep ocean water has been attempted, and more than 30 Thalassotherapy Facilities have been in operation[70]
Balneo Therapy	Operation of the Healthy Hot Spring System and Training Related Personnel	1952	-Enactment of Hot Spring Act (Ministry of Environment)
		1954	-Designation of the National Healthy Hot Springs
		1976~	-The Japanese Society of Balneology, Climatology and Physical Medicine: Accreditation of Balneotherapy Doctor
		1981~1995	-Designation of additional national health hot springs among National Healthy Hot Springs
		1983	-(Foundation) The Japan Health & Research Institute introduced the Kurhaus System(Multipurpose Healthy Hot Spring Center) in Germany[71]
		1993~2004	-Designation of additional exchange and recreation hot springs among the National Healthy Hot Springs
		1998	-Establishment of NESPA Co. Ltd., a new health-friendly hot spr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company
1999~	-Japan Balneo Therapist Association: Training of Balneo therapist, Underwater Working Instructor, Hot Spring Health Planner, Hot Spring Village Specialist		

4) 우리나라의 국립산림과학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립정책연구기관임

2006년부터 ‘산림테라피기지’ 등을 인증하고 있다[65].

2008년에는 ‘연구회’의 명칭을 ‘소사이어티’로 변경하고 산림테라피 국제네트워크회의, 임야청, ‘연구소’, 산림의학연구회와 연계하여 산림테라피 정책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소사이어티’에서는 치유 및 질병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인증된 숲을 대상으로 ‘산림테라피기지’ 및 ‘산림테라피로드’를 인증하고 있으며, 현재 65개소가 인증·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산림치유 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검정시험을 통해 ‘산림테라피가이드’와 ‘산림테라피스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28,65].

한편, Hosono[53]는 산림치유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복지사업과 민박사업, 지역특산품 판매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2.2 해양치유정책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58].

지역의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해양치유시설과 대학이 협력하여 해양치유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등 민간 주도의 적극적 추진이 돋보인다. 특히 오키나와현의 류큐대학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 안정성·유효성·가치창조성을 기반으로 탈라소테라피와 연계한 헬스투어리즘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21,58] 민간차원의 노력 및 정책화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4.2.3 온천치유정책

온천치유정책과 관련해서는 환경성⁵⁾에서 온천법을 기반으로 1950년대부터 ‘국민보양온천지’를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일본건강개발재단에서 독일의 쿠어하우스 시스템(다목적 온천보양관)을 도입하여 온천의 치유적 기능을 강화하였다[70,75].

환경성에서는 고령화 및 도시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민보양온천지 중 온천의 보건적 이용이 촉진 가능한 곳을 ‘국민보건온천지’로 지정(1981~1995)하고, 자연과의 교류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류·휴양온천지’⁶⁾로 지정(1993~2004)하는 등 보양온천의 수요와 기

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양온천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강구하였다[31].

최근에는 새로운 보양형 온천시설을 기획·개발·운영하는 기업인 (주)네스파(NESPA: newspa)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형 커뮤니티 스파, 엔터테인먼트 스파, 동양의학 및 항노화와 연계한 메디컬 스파 등 수요자 맞춤형 온천 개발 및 온천문화 창출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76].

일본의 온천치유인력 관련 인증은 ‘온천의학회’와 ‘보양사협회’로 이원화된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온천의학회’에서는 유럽의 온천의학을 기반으로 학회 내 의사 자격증을 가진 회원들이 온천의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온천요법의 인증제를 도입하여 2021년 4월 현재 1016명(온천요법전문의 196명 포함)이 인증되었다. 온천요법전문의의 경우 온천요법의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온천의료에 관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를 대상으로 인증하고 있다[77].

한편 온라인 면접조사에 의하면 ‘보양사협회’의 경우 온천보양사 자격제도(1999년 도입) 및 별도 연수 프로그램인 수중워킹지도사, 보양온천 플래너, 온천마을스페셜리스트 등의 관련 인력을 양성·연계함으로써 보양온천제도와 보양온천을 활용한 헬스투어리즘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이러한 인력양성 체계를 통해 보양온천지역에서의 온천요법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온천치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온천보양사는 온천의학과 예방의학을 기반으로 온천요법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수중워킹지도사는 건강증진을 위해 수중워킹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온천보양 플래너는 스파 헬스투어리즘을 기획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온천마을스페셜리스트는 온천마을(温泉郷)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온천 이용법을 제시하고 지역의 연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전문인력을 가리킨다[78].

5. 한일 양국의 웰니스관광정책 비교를 통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과 일본의 웰니스관광정책의 주요 동향과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5) 우리나라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정부조직인

6) 일본어로는 ‘ふれあいやすらぎ温泉地’라고 사용함

웰니스관광의 정책주체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체부’와 ‘공사’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산림치유정책은 산림청, 해양치유정책은 ‘해수부’, 온천치유정책은 ‘행안부’ 등 웰니스관광의 영역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서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진흥기구’ 및 ‘인증위원회’, ‘소사이어티’, ‘온천의학회’와 ‘보양사협회’ 등 주로 민간조직이 주체가 되어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 정책 추진주체에 있어 관주도와 민간주도라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웰니스관광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탑다운 방식의 관리보다는 NPO법인과 사단법인 등 민간차원의 인증을 통해 정책의 질적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웰니스관광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헬스투어리즘 관련 정부조직 및 지자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진흥기구’를 통해 헬스투어리즘의 융합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림치유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타당성 평가,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민간단체를 통한 산림테라피기지 및 테라피로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조성이나 환경조건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보니 보다 유연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는 일정 규모의 산림에 대해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산촌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 기존 인프라에 다양한 자원을 산림테라피와 연계하는 소프트웨어적 활용의 의미가 강조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65].

해양치유정책의 경우는 양국 모두 최근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림치유나 온천치유 분야와 비교하여 법제화나 산업화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해양치유시설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양치유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해양치유 관련 지자체와 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사업모델 발굴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온천치유정책은 일본이 우리보다 보양온천제도를 앞서 도입하였으며, 국민보양온천지의 수요와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보양온천지’와 ‘교류·휴양온천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 보양온천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도모

Table 4. A Characteristic Comparison of Major Wellness Tourism Policy in Korea and Japan

Division	Korea	Japan
Policy Principal	-Ministry of Govern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Forest Service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Japan Tourism Agency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non-profit corporations -(NPO) Japan Health Tourism Organization -Forest Therapy Society, a specific NPO corporation -The Japanese Society of Balneology, Climatolgy and Physical Medicine -Japan Balneo therapist Association
Law and System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Forest Welfare Promotion Act -Regulations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Healthy Hot Springs	-Tourism National Promotion Basic Law -Hot Spring Act
Related Facilities	-Wellness Tourist Attractions -Wellness Tourism Cooperation Zone (Cluster)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Healing Forest -Healthy Hot Springs	-Forest Therapy Base -Forest Therapy Road -National Healthy Hot Springs -National Health Hot Springs -Exchange and Recreation Hot Springs
Program	-Wellness MOMSHIM and MAMSHIM Program, etc. in Chungcheongbuk-do	-Health tourism certification program (approximately 40)
Related Authentication		-Health Tourism -Forest Therapy Base -Forest Therapy Road -Balneotherapy Doctor -Balneotherapy Special Doctor
Training Human Resources	-Forest Therapy Instructor	-Forest Therapy Guide -Forest Therapist -Balneo Therapist -Underwater Walking Instructor -Healthy Hot Springs Planner -Hot Spring Village Specialist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천치유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온천요법의를 인증하고 온천보양사를 양성하는 등 온천치유정책의 효율적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웰니스관광의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강구하고자 우리와 정책적 유사성을 가진 일본과 웰니스관광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웰니스관광 정책동향의 관점을 웰니스관광정책과 웰니스관광 관련정책(산림치유, 해양치유, 온천치유 등)으로 구분하여 문헌연구 및 온라인 면접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정책영역 및 추진시기별로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웰니스관광 분야가 다소 포괄적이다 보니 정책동향의 관점을 이원화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추진시기와 분석범위도 주로 2000년대 이후의 주요 정책에 초점을 맞춰 동향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제약이 있었다.

조사 결과, 웰니스관광 관련 개념은 한일 양국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본의 경우 치유(힐링)관광보다는 헬스투어리즘이나 웰니스관광 개념 사용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웰니스관광정책은 정책주체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율성, 관련 인증 및 인력 양성 분야는 일본이, 정책의 추진력과 제도적 정비는 우리나라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관련 시설에 있어 우리나라는 웰니스관광지, 일본은 헬스투어리즘 인증 및 보양온천지(국민보양온천지, 국민보건온천지, 교류·휴양온천지)가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양온천제도도 수요와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양온천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도모하고, 온천치유인력의 전문화(온천요법의, 온천보양사 등)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진흥기구', '소사이어티', '온천의학회', '보양사협회' 등의 정책 사례에서와 같이 웰니스관광을 질적으로 인증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 웰니스관광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일부 광역권을 중심으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진흥기구'나 '소사이어티' 사례와 같이 관련 정책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협의체' 구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때 웰니스관광의 정책 영역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 산림청, '해수부', '행안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물론 웰니스관광 관련 지자체, 학술조직, 산업체 등 다양한 정책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성공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웰니스관광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치유자원(예: 치유의 숲, 산약초, 해양심층수, 보양온천 등)과 웰니스 향토음식,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웰니스관광의 치유적 효과와 상품적 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관광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피해액이 2020년 상반기에만 총 7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관광 분야에서만 5조 9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79].

이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국내여행 유형도 자연경관(49.2%), 휴식·휴양숙박시설(2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80,81]. 국내여행 패턴이나 여가문화도 안전을 중시하며 야외공간에서의 캠핑이나 자연자원과 연계한 휴양이나 힐링을 추구하는 등 관광산업 전반에 있어 뉴노멀 시대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우울감(코로나 블루) 확산으로 치유와 건강 및 안전을 중시하는 여행 패턴인 웰니스관광과 관련된 사회적 수요 및 공급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웰니스관광은 워드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웰니스관광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웰니스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B. H. Lee. (2004). *Life health industry and wellness tourism*. Chuncheon : Gangwon Tourism Research

- Institute.
- [2] C. Jeong, K. G. Roh & S. J. Moon. (2011). Walking Tourists' Environmental Paradig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Comparis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n Walking Tourism. *Journal of Tourism Studies*, 23(1), 109-124.
 - [3] K. H. Ha. (2011). A Strategy of the Oriental Medical Tourism to Meet the Wellness Trend. *Tourism Research*, 32(0), 35-54.
UCI : G704-SER000009129.2011..32.003
 - [4] Global Wellness Institute. (2018). *Global wellness tourism economy*.
 - [5] J. Y. Yu. (2020). Wellness Tourism Trend Based on Healing. *Webzine Culture & Tourism*, 2020(7).
 - [6]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8.07.24.). *Leading the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Tourism through Wellness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Press Release.
 - [7] S. B. Hong. (2019.09.16.). 'Gangneung Wellness' is on the Rise by Recreation and Health Management. *News of Gangwondomin-Ilbo*, p. 14.
 - [8] M. S. Shin. (2019.11.10.). Recharge and Go in Chungbuk. *Online News of Chungbuk Ilbo*.
 - [9] Y. M. Bae, Y. H. Lee, S. M. Kim & Y. H. Park.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st Therapy Policies of Japan and Korea.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3(2), 299-306.
DOI : 10.14578/jkfs.2014.103.2.299
 - [10] J. A. Choe & J. M. Rhie. (2019). Analysis of Transitions on Healing-related Concepts and Trends : Focusing on Well-being, Wellness, and Healing Keywords.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20(4), 597-612.
DOI : 10.47294/KSBDA.20.4.43
 - [11] S. Y. Kim, K. Y. Park & J. S. Uh. (2010). *A Study on the Attracting Strategies of Medical Tourism(Medical Spa) in Goseong-gun*. Goseong : Goseong County.
 - [12] S. Y. Kim. (2017). *Theory and Practice of Tourism Resources*. Seoul : Daewangsa.
 - [13] J. O. Kim. (2015). *The Impact of Nature-based Outdoor Recreation Settings on the Healing Tourists' Attention Restoration and Quality of Life*.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14] C. K. Yoo, S. H. Lee & H. S. Moon. (2013). *Understanding of Medical Tourism*. Seoul : Kimoonsa.
 - [15] JTB Tourism Research & Consulting Co. (2021). *Website of JTB Tourism Research & Consulting Co.* Tourism Database.
<https://www.tourism.jp/tourism-database/glossary>
 - [16] NPO Japan Health Tourism Organization. (2021). *Website of Japan Health Tourism Organization*.
<https://www.npo-healthtourism.or.jp>
 - [17] J. Y. Yu, J. A. Lim & S. I. Kim. (2014).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Residence-type Medical Tourism Cluster Models*. Seoul : Korea Tourism Organization.
 - [18] INBOUNDNOW. (2018.07.10.). *Website of Inboundnow*. What is Wellness Tourism?.
<https://inboundnow.jp/media/knowhow/2223>
 - [1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04.24.). *Websit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s Release*, Selected as 2019 Wellness Tourism Base.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List.jsp
 - [20] S. H. Yu & H. Lee. (2018). Development of a Conceptual Model of Wellness Tourism : Focused on Hedonic and Eudaimonic Perspectiv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2(7), 183-209.
DOI : 10.17086/JTS.2018.42.7.183.209
 - [21] Wellness Research Field. *Website of Faculty of Global and Regional Studies, University of the Ryukyus*.
<https://health-tourism.skr.u-ryukyu.ac.jp>
 - [22] H. H. Shin. (2013). *Tourism Service Products and Service Quality on Tourism Satisfaction and Brand Loyalty*.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23] G. W. Mun.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Healing and Healing Tourism in Daejeon*. Daejeon :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 [24] J. O. Kim & C. K. Lee. (2017).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ceptual Model of Korean-style Healing Tourism and Analysis of Healing effects : Focusing on Participants in Nature-based Outdoor Recre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5), 5-21.
DOI : 0.21298/IJTHR.2017.05.31.5.5
 - [25] Korea Forest Service. (2015). *Healing Forest Creation and Operation Manual*.
 - [26] Korea Forest Service. (2012). *Forest Healing Promotion Plan : 2012-2017*.
 - [27] Y. H. Lee. (2012). *A Study on the Forest Management Methods for Therapeutic Forest*.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28] Forest Therapy Society. (2021). *Website of Forest Therapy Society*. <https://www.fo-society.jp>
 - [2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6.12.20.). *The First Step to Fostering the Marine Healing Tourism Industr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ess Release.
 - [30] M. S. Jwa. (2018). Strategies and Tasks for Marine Healing Industrialization in Jeju Island. Jeju Research Institute. *JRI Policy Issue Brief*, 292, 1-13.
 - [31] Wikipedia. (2021). *Website of Japanese Version of 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
 - [32] Wellnessdevelopment Corp. (2021). *Website of Wellnessdevelopment Corp.*, Thalassotherapy.

- <https://www.wellnessdevelopment.co.jp>
- [33]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Websit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What is the National Rehabilitation Hot Spring?*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ublicHotSpring/screen.do>
- [34] J. J. Choi & J. H. Kim. (2016). *A Plan to Revitalize Wellness Tourism on the East Coast of Gyeongbuk : Focusing on the Use of Hot Spring Resources*. Pohang : Bank of Korea Pohang Headquarters.
- [35] H. Lee & S. H. Yu. (2018). Development of a Conceptual Model of Wellness Tourism : Focused on Hedonic and Eudaimonic Perspectiv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2(7), 183-209.
DOI : 10.17086/JTS.2018.42.7.183.209
- [36] C. Jeong, E. M. Sohn & R. S. Jeong. (2014). The Preferences and Selection of Wellness Tourism Facilities : Focused on the Potential Tourists to Health Resort. *Journal of Tourism Studies*, 26(3), 51-77.
UCI : G704-SER00001449.2014.26.3.002
- [37] J. C. Lee. (2015). The Development of "Stay Tourism Produc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 Focused on Wellness/Medical Tourism.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27(1), 75-92.
UCI : I410-ECN-0102-2015-900-002023432
- [38] I. S. Choe. (2017). A Study on the Trend Analysis and Vitalization Strategies for Wellness Tourism.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143-143.
- [39] S. N. Choi, J. H. Lee & I. S. Chae.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Activation of Wellness Tourism: With Focus on Jeollanamdo.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86(0), 625-650.
DOI : 10.18604/tmro.2018.22.7.30
- [40] T. G. Yu. (2019).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urrent Status of Wellness Tourism Site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665-675.
DOI : 10.21742/AJMAHS.2019.01.67
- [41] J. Y. Yu. (2019). *Wellness Tourism Evaluation Index Development Research*. Korea Tourism Organization-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42] J. H. Min & J. I. Kim. (2019). An Analysis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Healing Tourism Policy by AH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1), 1473-1485.
DOI : 10.22143/HSS21.10.1.103
- [43] S. Y. Kim. (2019). The Commercialization Ways of Wellness Tourism and the Problems of Healing Tourism in Gangwon Provi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7), 317-324.
DOI : 10.15207/JKCS.2019.10.7.317
- [44] S. S. Oh. (2016). Development Research of Healing Tourism Products for Wellness : Focused on Meditation Experience Programm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69(0), 79-99.
UCI : G704-001700.2016.18.6.011
- [45] W. K. Lee & Y. W. Kim. (2019). A Study on the Strategic Approach for Tourism Commercialization of Agro-Healing. *Journal of Hotel & Resort*, 18(1), 57-82.
UCI : I410-ECN-0102-2019-300-001386263
- [46] K. H. Ha. (2018). A Study on Cultivation of Wellness Leisure Professional for Public Leisure Activation.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7(1), 17-33.
DOI : 10.24992/KJHT.2018.01.27.01.17
- [47] A. Takeda. (2019). The Current State of Health Tourism Studies. *Tourism Studies*, 21, 35-44.
DOI : 10.19002/AA12438820.21.35
- [48] N. Nishimura. (2016).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Health Tourism : An Analysis of Wellness Walking at Kobe Municipal Arboretum. *Bulletin of Kobe Yamate University*, 18(0), 99-126.
- [49] M. Arakawa et al. (2015). Health Tourism in Japan. *3rd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Asia Pacific Chapter,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TTRA)*, 100-101.
- [50] M. Arakawa. (2015). Restructuring Japanese Health Tourism and Advancing Mental Health Tourism in the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The tourism studies*, 27(1), 18-23.
- [51] M. Arakawa. (2015). Why is the Sea Good for Health? : Fusion of Thalassotherapy and Tourism. *KAIUN*, 1053, 77-80.
- [52] M. Arakawa. (2010). Evidence for Spa Therapy : Studies on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Health Tourism.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0), 47-62.
- [53] H. Hosono. (2016).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Issue of Forest Therapy Programs. *Journal of Japanese Regional Policy Research*, 16, 74-81.
- [54] H. J. Lee & E. K. Sim. (2012). The Present Condition and Future of Thalassotherapy in Japan and Korea. *Japanese Cultural Studies*, 42, 403-420.
- [5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05.24.). *Websit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s Release*. Selected as 25 Wellness Tourism : Fostering health and healing tourism.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List.jsp
- [56]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7.07.18.). *Leading New Tourism Korea with Wellness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Press Release.
- [5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05.08.). *Websit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s Release*, Fostering Local Wellness Tourism Bases for Body and Mind relaxation.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List.jsp

- sp
- [58] J. W. Hong, I. J. Yoon, I. S. Choe & J. A. Lee. (2019). *Introduction of Marine Recreation and Welfare Services through Fostering the Marine Healing Industry*. Korea Maritime Institute. Pending research 2018-27.
- [59]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The 2nd Basic Marine Tourism Promotion Plan*.
- [60]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ork plan*.
- [61]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07). *Research on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National Conservation Hot Spring*.
- [6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08). *2008 Healthy Hot Spring Business Handbook*.
- [63]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Rule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Conservation Healthy Hot Springs*.
- [64] TTL News. (2020.06.10.). *Korea Tourism Organization, Newly Selected 9 Recommended Wellness Destinations in 2020*.
- [65] S. J. Park, R. H. Yoo, J. H. Lee & M. A. Jeong. (2016). *Japan's Forest Healing Policy and Promotion Statu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International Forest Policy Topics, 41.
- [66] J. W. Hong, I. J. Yoon, I. S. Choe & J. A. Lee. (2017). *Provision of Opportunities to Foster Domestic Marine Healing Tourism*.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Trend analysis*, 55(0), 1-17.
- [67]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2021). *Website of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http://www.fowi.or.kr>
- [68] J. Y. Lee & T. K. Lim. (2020). *[Policy Studies 2020-20] Developing Hot Spring Industry and Improving System*. Wonju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69] Health Tourism Certification Committee. (2021). *Website of NPO Health Tourism Certification Committee*. <https://htq.npo-healthtourism.or.jp>
- [70] B. S. Lee. (2018). [Policy Proposal] East Coast Marine Healing Industry Promotion Direction. *Monthly public policy*, 156, 55-58.
- [71] J. I. Lee & H. S. Yang. (2008). A Study on the Prosperity of Hot Spring Industry using Healthy Hot Spr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9(5), 1467-1478.
DOI : 10.5762/KAIS.2008.9.5.1467
- [72] INBOUNDNOW. (2018.05.01.). *Website of Inboundnow*, Wellness Tourism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Health.
<https://inboundnow.jp/media/knownow/648>
- [73] M. Arakawa(Edited by NPO Nippon Spa Association). (2017). *Wellness Tourism : Trip to the Third Place*. Fragrance Journal LTD.
- [74] M. J. Kang, R. H. Yoo, T. G. Song, Y. S. Ahn & K. W. An. (2011). A Proposal Concerning the Healing Forest Policy of Jellanamdo Areas through an Analysis of the Japan's Forest Therapy Policy.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23(2), 85-102.
UCI : I410-ECN-0102-2012-410-002268910
- [75] S. G. Kim, O. H. Kwon & U. J. Jang. (2001). *Efficient Development, Use and Management of Hot Springs*.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76] NESPA(New Spa Culture Create). (2021). *Website of Nespa*. <http://www.nespa.com>
- [77] Japan Spa Association. (2021). *Website of Japan Spa Association*. <https://www.spa.or.jp/onsen/547>
- [78] Japan Balneo Therapist Association. (2021). *Website of Japan Balneo Therapist Association*. <http://www.onsen-hoyoushi.com>
- [79] J. U. Kim. (2020.07.27.). Over 7 Trillion Won for Covid-19 Damage in the Field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line News of Yonhapnews*.
- [80] T. I. Gwon & G. R. Jeong. (2020). Domestic Travel in the Corona(Covid-19) Era, What Do the People Think? : Main Results of Domestic Travel Survey Due to COVID-19. *Tourism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 DB. Tourgo Insight*, 24.
- [81]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20). *Domestic Travel Survey Report According to Post-Corona(COVID-19)*.

김 상 윤(Sang-Yoon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경희대학교 입학과(농학사)
- 1992년 2월 : 경희대학교 입학과(농학석사)
- 1997년 3월 : 일본 동경대학교 산림과학전공(농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호텔

관광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특화관광, 야외휴양정책
- E-Mail : treekim@kduniv.ac.kr